

남도한바퀴 '1박 2일 남도여행' 나왔다

순천만정원박람회 등 방문 코스 10일부터 4주간 매주 토·일 운영 "국내외 여행객 1억명 유치 목표"

전남 관광명소를 즐기는 '남도한바퀴'가 봄 테마상품에 이어 '1박2일 남도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체류형 상품을 통해 국내외 여행객 1억명 유치를 목표로 삼았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남도한바퀴 '1박

2일 남도여행' 상품은 10일부터 4주간 매주 토·일요일 총 4회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1인 17만9000원으로 왕복 버스비·4식 식사비·숙박비(2인 1실) 등이 포함됐다.

여행 1일차엔 목포 근대역사문화거리, 목포 해상케이블카·고하도 데크길,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강진만 생태공원과 가우도 등을 들른다.

강진에서 1박 후 2일차엔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 곡성 섬진강기차마을방문·체험으로 구성했다.

이번 '1박2일 남도여행' 상품은 수도권 등 외지 관광객의 전남 방문과 체류시간 확대에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박 2일 남도여행' 상품은 KTX·SRT 이용객은 광주송정역에서, 고속버스 이용객은 광주유스퀘어 터미널에서 탑승하면 된다. 버스는 토요일 오전 11시 광주유스퀘어, 11시25분 광주송정역에서 각각 출

발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도한바퀴 누리집 또는 남도한바퀴 콜센터(062-360-8502), 남도한바퀴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남도는 '1박2일 남도여행' 상품을 운영 후 성과를 분석해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계절별 테마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도는 남도한바퀴 1박2일 남도여행 상

품 출시에 맞춰 서울·용산·수서역과 서울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선)에서 전단지

로 홍보하고, 지역 유튜브,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해 상품을 알릴 계획이다. 조대정 전남도 관광과장은 "남도한바퀴가 당일 여행상품만 운영해 원거리·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남 관광지와 음식 등 준비한 1박2일 상품을 통해 추억여행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전남도, 2000개 마을서 농번기 공동급식 시작

조리원 인건비·부식비 지원 일손 부족 해소·가사 부담 경감

전남도가 본격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 해소와 여성농업인 가사 부담 경감을 위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2000개 마을에서 추진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4년 시작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번기 철 농업인이 점심때 함께 모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한다.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한 여성 농업인이 농사일을 중단하고 자택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할 필요 없이 공동급식 시설로 가서 식사하면 된다.

전남도는 올해 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로 마을당 최대 242만원을 지원한다. 마을공동급식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에 모여 식사를 함께하며 이웃 간에 정까지 돈독케 해 농촌지역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새로운 풍속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전남도는 마을공동급식 외에도 출산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가 도우미 인건비와 행복이용권(바우처) 지원 등을 통해 여성 농업인 복지와 경영 지원에 힘쓰고 있다.

최항지 기자

다목적 광주소방 헬기 28일 취항... 25년 만에 교체

구조 임무 적합성·안전성 검증

광주 지역 구조·구급·산불진화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할 광주소방 헬기가 취항한다. 기존 소방헬기 도입 25년만의 교체다. 7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광주공항 119항공대에서 다목적 소방헬기 취항식을 갖는다.

신규 취항하는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의 AW-139 기종이다.

취항을 앞둔 이 헬기는 구조 임무 적합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기종이다. 현재 소방·해경·민간항공사 등 다수가 운용중이다.

이 소방헬기는 △주야간 임무 수행이 가능한 자동비행장치와 야간투시경(NVG) 장치 탑재 △국내 전역 전자 지도

△전방 시야 확보 장비(EVS) △지상 충돌 경보 장비(EGPWS) △공중충돌 경고 장비(TCASII)를 보유하고 있어 안전한 항공구조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

광주시나 인접 시·도에서 수도권 주요 병원까지 무급유 비행과 지역 내 임무 수행 중 재급유 없는 연속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1500ℓ 이상의 담수가 가능, 산불진화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광주소방이 운용해 온 기존 소방헬기는 1997년 5월 도입한 기종(BK117B-2)이다. 2시간40분의 짧은 항속시간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 이송 때 연료 탑재량 부족, 산불진화에 비효율적인 담수용량(670ℓ), 안전장치와 자동비행 등 최신 성능 부재로 항공 임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김성수 기자**

서용규 시의원 "광주시,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지연"

광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건립 사업이 더디게 진행돼 적극 행정을 주문하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사진)은 7일 광주시 복지건강국에 대한 2022년도 예산안 결산 심사에서 "5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과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빠른 추진 의지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회관 건립은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일부 장애인 단체의 부지 이전 요청으로 지난해 1월부터 설계 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중앙부처는 국비 교부액 중 올해 미집행된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호남권 재활병원 증축과 리모델링을 통한 병상 확



충을 골자로 국·시비가 절반씩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현재까지 시비 편성 없이 국비 36억원만 편성돼 있다.

서 의원은 "장애인단체 간 이해득실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그동안 각계 의견 수렴이 어느 정도 됐다고 판단한다"며 "담당 부서의 빠른 추진 의지와 결단력으로 지지부진한 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을 펼칠 때"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회관 용역은 부지에 대한 장애인단체 간 내부 이견과 대지 내 사유지 매입 요청 등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를 포함해 다른 사업도 행정 절차를 밟고 정부, 장애인단체 등과 협의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이병운(왼쪽부터) 순천대 총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이 7일 전남도청 접견실에서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공동협력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9**

전남도·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공동협력" 선언

의료여건 개선·지역소멸 대응

전남도는 7일 도청 귀빈실에서 국립 목포·순천대학교와 함께 도민 의료여건 개선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공동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공동 선언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철 목포대 총장, 이병운 순천대 총장 등이 참석해 국립 의과대학 신설 공동협력 선언문에 서명했다.

전남도·목포대·순천대는 선언문을 통해 '전남도민의 의료여건 개선과 당면한

지역소멸 위기 타개에 앞장',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양 대학 간 역량집중·상호협력 강화',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신설 반드시 포함' 등을 결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공동협력 선언'은 정부와 의료계에 보내 의대 설립의 절실함을 한목소리로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지역 양대 국립대학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도

록 함께 역량을 집중하고 상호 협력기로 해 대학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한 공동 전략 모색이 기대된다.

김 지사는 이날 두 대학이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공동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논의 시 의대 없는 전남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앞으로 국립의대 유지를 위한 양 대학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지역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보내 국립 의과대학 설립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최항지 기자**

전남도, 2026년까지 유기농 생태마을 100곳 확대

여수 옥적 등 4곳 신규 지정

전남도가 오는 2026년까지 유기농 생태마을을 100곳으로 확대한다.

전남도는 '상반기 유기농 생태마을' 4곳을 신규로 지정해 현재 49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민선8기 도지사 공약에 따라 2026년까지 100곳으로 확대 육성한다고 7일 밝혔다.

'유기농 생태마을'은 10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하는 친환경농업 실천 마을 중 진

환경인증 면적이 10ha 이상이면서 유기농 인증 면적 비율이 30% 이상으로 생태환경이 잘 보전되고 친환경 실천 의지가 강한 마을을 지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월 중순까지 접수해 5월 하순 1차 서류심사와 2차 전문가 현장 평가를 거쳐 여수 옥적마을, 장흥 모령마을, 영암 선암마을·송내외마을 4곳을 신규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4개 마을에는 유기농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육성에 필요한 생산·가공·

유통·체험시설 구축 사업비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마을 주민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마을 가꾸기 등 마을당 4000만원을 지원하는 유기농생태마을 활성화 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한다.

전남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업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마을을 유기농생태마을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4곳을 신규로 지정한 가운데 9월께 하반기 추가 신청을 받는다. **최항지 기자**

광주시, 10월 4~7일 DJ센터서 세계인권도시포럼

광주시는 오는 10월4일부터 7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에는 세계 대표 인권기구인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유네

스코 본부가 3년 연속 공동 주최기관으로 참여한다.

올해 주제는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 시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포럼에서 빈곤과 불평등으로 발생하는 최근의 인권 이슈와 주요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한다.

새롭게 발생하는 인권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적 차원의 전략과 해결방안도 모색한다. **김성수 기자**